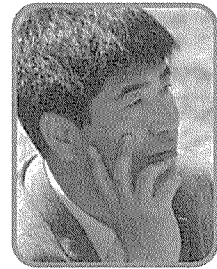


문학과 삶

- 풍요로운 언어의 숲을 찾아서 -

(2004. 9. 16. 경북상주도서관)



양문규*

경상도 상주지역은 오랜 전통과 문화를 지닌 고을입니다. 상주는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동과 이웃해 있기에 가끔 이 지역을 여행하게 되었지요. 어느 곳이나 기억에 남을 만큼 아름다웠지만 저는 특별히 '자전거 박물관'과 '남장사'라는 절을 자주 찾곤 하였습니다.

가을이 막 시작되는 지난 9월 16일, 또 다시 상주를 찾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주도서관에서 '문학과 삶'이라는 주제로 지역 주민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고 창작과비평사가 후원하여 이루어지는 이번 강연은 지역 문화의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창작과비평사에 근무하고 있는 김이구(소설가)형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중앙집권적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는 서울의 번두리 문화로 인식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지요. 이번 순회 강연이 가지는 의미는 가시적인 행정 위주의 행사가 아닌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의식을 고취시키고,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방적인 강연보다는 지역 주민과 한 자리에 모여 앉아 문학 토론의 장을 펼치고, 문학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 시종 진지한 모습으로 만남에 동참했던 상주 시민들을 보며 이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중 행사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기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문학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인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창작 교실 개최가 있겠지요. 지역 문화를 이끌고 가꾸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문학 창작 활동을 통해서 활력 있는 삶을 만들고, 그런 지역 주민이 문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강연에서 '공동체적 삶을 중시했던 시인 백석'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 문학박사, 1989년 「한국문학」으로 등단, ymoonku@hanmail.net, 시집 「영국사에는 범종이 없다」, 「범어리 연가」, 논문 「신경림 시 연구」, 「백석 시 연구」 등

적 삶을 추구해 온 우리 지역 문화의 특성에 토대를 두고자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과거 우리의 시는 참으로 풍요로운 언어의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1930년대 우리의 시는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는 언어로 시적 아름다움과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 중 백석 시인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가 사용하고 있는 시어가 요즘 우리 시단의 대다수 시인들과는 달리 공동체적 언어를 빈번하게 운용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백석의 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시어들은 민족 공동체의 따스한 정감을 향유할 수 있는 시어들로 채워져 있는데, 이들 시어들은 관념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실제적인 삶의 양식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시단의 시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는 일차적으로 농경사회가 해체되면서 농촌 속의 언어도 사라지고 있는 것이겠지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최근 필자는 강단에서 신경림의 시집 『농무』를 비롯한 일련의 시집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신경림 시의 시적 배경은 물론 작품 속에 나오는 시적 어휘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산업화 이후 출생한 이들 세대는 경제적 상황 논리의 지배하에서 문화를 습득하며 성장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농경사회의 체험이 전혀 없는 이들 세대는 이전의 세대와 삶의 양식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이들에게 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어휘의 뜻을 풀이를 따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격한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문예지의 설문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백석은 현대시의 정점에서 있는 시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석의 시가 이처럼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받는 동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는 무엇보다도 백석이 풍부한 시어를 활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의 시는 농경사회의 원시적 삶의 결을 구체적 언어로써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아련한 추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백석의 시적 토대는 농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지어 및 일상어, 노동어가 많은 이유는 그 때문인데, 이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던 우리 민족적 정서와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을 일컫는 시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경사회의 건강한 삶의 양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결과입니다. 여기에 인물 및 호칭어들은 각기 시적 상황과 호응하며 서사적 내용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들 인물들은 대부분 소외되고 억압받는 식민 치하의 생활상을 드러내며 상실한 민족 공동체적 삶의 원형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군상들의 모습 속에서, 가정의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는 가족 친지들의 따스한 공동체적 삶 속에서, 그리고 역사적 사실로서의 현재적 가치를 되새김 해주는 역사적 인물 등으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백석의 시에서는 생물어, 즉 동식물들의 시어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식물어는 대부분 우리의 들과 산에 자생하는 풀과 나무나 농산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시적 공간이 산골임을 암시하며 '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던 당시의 삶의 애환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어에는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어, 야생하고 있는 산짐승, 날짐승 등으로, 이들 생물어들은 농촌 공동체적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시적 의미를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그밖에 백석의 시에서는 많은 음식어와 민속놀이어 등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민족의 보편적인 생활 양식과 감정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건강

하고 풍요롭게 살던 우리 민족의 원형적 삶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주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시절에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 표명은, 민족문화를 회복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함으로써 민족 공동체적 삶을 구축하려는 시정신의 발로가 아니겠습니까. 이야말로 민족 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점이 백석이 독자들에게 과거의 풍요로웠던 공동체적 삶의 원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시적 진실을 높여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들을 살펴봅시다. 오늘날 우리 시단의 주된 풍토로 감지되고 있는 대다수 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어는 삶과 동떨어진 이질적인 것들만을 쫓고 있어요. 이는 도시 산업화 이후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자본의 위력이 가세함에 편승하는 것이겠지요. 과거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행위가 개인적 물질주의로 흐르면서 삶의 행위가 일회적이며 소비적으로 흐르는 데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각종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사용으로 인하여 과거의 풍요로웠던 공동체적 문화가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신경림 시인은 요즘 우리 시의 경향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용을 주절주절 혼잣말처럼 지껄이는 시,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시가 좋은 시의 표본으로 내세워져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는 관념적인 언어가 남발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이며, 공동체 문화에 대항하는 개인적 물질적 문화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일 것입니다. 현대시가 태동하면서 도시적이고 이질적인 언어에 의한 새로운 시적 양식과 내용을 추구하는 경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근래에 발표되는 시들은 그 정도가 지나쳐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는 우리의 정신과 사물을 연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언어를 사용하며, 사실을 보다 더 사실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가치화된 언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삶의 실재와 밀착된 언어를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결을 형상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시의 왜소화를 막고 위기에 처한 현대시를 구하는 대안일 것입니다. 공동체적 언어의 활용으로 관념적 언어 범람을 극복할 수 있으며, 보다 풍요로운 언어로 생명력이 넘치는 시를 창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인들은 극단적으로 도시적 삶만이 현대적이라 믿고 이를 쫓아가기에 분주합니다. 그리고 언어의 불확실성을 주장하며 삶과 유리된 언어, 이미 생기를 잃은 기호화된 언어로 구축된 시들이 더욱 새로운 시들이라고 박수를 받습니다. 이러한 때에 백석 시에 사용된 시어에 대한 논의가 얼마만큼 독지들과 시인들에게 설득력을 가져다줄지는 의문입니다. 백석 시를 다시 읽고 연구하면서 우리 시가 얼마나 옹색해져 가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이제 삶과 동떨어진 관념적인 언어의 도식에서 벗어나 풍요롭고 소박한 삶을 시적 대상으로 하여 풍요로운 언어의 숲을 가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도서관은 문화 유산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문화 유산은 과거의 문화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 문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그 지역의 문화의 장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순회 강연이 지닌 의미는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야겠지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문화 창출을 위한 한국도서관협회의 지속적인 행사 지원이 따라줄 것을 기대합니다. 지역 문화는 지역을 뛰어넘어 그 민족의 지적 유산으로 남아야 합니다. 사라져 가는 이 땅의 공동체 문화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